

도심 속 나들이 명소... ACC 하늘마당 인기

지난달 4만8000여명 발길 이어져 공연·플리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 사진 찍기 좋아 포토존 인기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이 인생 사진 찍기 좋은 소풍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ACC 하늘마당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종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달 4만 8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엔 이른 더위와 함께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시원

한 낭만을 즐기려는 방문객이 급증, 오후 8시쯤엔 잔디밭이 돛자리로 가득 차는 상황이다.

하늘과 맞닿은 문화전당의 정원인 '하늘마당'은 6986.7㎡규모로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열린 공간이다. 주변이 산책로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실제로 ACC가 잔디 보수작업을 거쳐 지난달 4일 하늘마당을 공식 개방한 이후 지난달에만 4만 7724명이 하늘마당을 찾았다. 지난 3월 하늘마당 방문객은 2만8159명, 4월엔 2만1565명이 이용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하늘마당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도심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자연풍광을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도 좋아 아무 때나 소풍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탁 트인 전망과 넓고 푸른 잔디, 제철 꽃을 심은 화단, 줄 조명(스트링 라이트) 등 사진기만 대면인 생사진을 찍을 수 있어 20-30대 사이에 '누

리소통망(SNS)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도 동력이 됐다.

ACC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젊은이의 취향에 맞게 하늘마당 사진 촬영구역(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하늘마당 잔디밭 오른쪽에 위치한 포토존 윗부분을 흰색,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원단으로 물결모양을 형상화해 동적인 움직임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이용객이 발길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16~17일엔 광주 동구청이 주최하는 '2023 광주 문화재 야행'이 개최된다. 17일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는 '학생 야외 버스킹'을 즐길 수 있다.

다음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는 야외전시 '하니 풍경'이 진행된다. 오는 10월 3-6일에는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본선이 하늘마당 등 ACC일대 4개 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하늘마당 앞 미디어큐브에선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실감콘텐츠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워크숍'에 참여한 예술가·창작자의 작품 13편이 오는 30일까지 낮 12시, 저녁 7시에 상영돼 화려한 볼거리를 더한다. 인근에서 상시로 열리는 '플리마켓'을 구경하는 재미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최근 2회 연속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우뚝 섰다"며 "하늘마당 외에도 열린마당(배롱나무 숲), 상상마당, 아시아문화광장 쉼터 등 다양한 열린 공간들이 있는 만큼 시민이 ACC에서 여유와 낭만,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삶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마당'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ACC 제공

김대원 신임 광주불교방송 사장 취임

광주 라마다호텔 회장

BBS광주불교방송 신임 사장에 김대원 라마다호텔 광주호텔 회장이 임명됐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은 BBS 광주 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김대원 라마다플라자 광주·충장호텔 회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김대원 사장은 앞서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으로 추천됐다.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사장은 선산(일선) 김씨 대종회 감사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광주지역연합회 자문위원, 광주관광재단 이사, 사단법인 광



주관광협회 이사,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앞서 지난달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으로도 추대됐다.

김대원 신임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광주불교방송의 설립목적과 방송이념에 맞게 초발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광주불교계의 숙원인 불교회관 건립불사를 완수해 광주불교방송을 불교회관으로 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원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7일까지다. **도선인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남도 종가 활성화 학술대회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가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남도 종가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종가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2023 제7회 전남 종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도 종가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종가문화 계승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한편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의 '인류문화유산으로서 종가 문화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태 전남도원의 '전남 종가 역사 문화 진흥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 방향', 퇴계 종가 차종손인 이치영 공주대 교수의 '종가 문화 계승의 구조와 현상 및 과제', 신용주 조선대 교수의 '남도 종가의 공간 구성 및 건축의 특성-종택의 미학과 그 활용', 국내 대표 음식문화 학자인 정혜경 호서대 명예교수의 '종가 음식문화의 특징 및 유용화 방안-남도 종가음식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주제별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지역 종가 대표자와 종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석학들로부터 종가 문화 활성화의 의미와 방향을 듣는 '남도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석학들의 제언'이라는 주제의 좌담회도 진행된다.

전남 종가회 관계자는 "4차례에 걸친 전남 종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남도 종가 활성화 사업의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준비한 학술대회"라며 "종가음식 전시 등 부대행사도 준비된 만큼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해 우리 고장 역사·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종가 문화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소장품 관찰 후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

드영미술관 27일까지 참가자 모집

드영미술관은 2023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Nature life in deyoung(자연과 삶, 그리고 드영)'의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소장품 관찰 후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을 진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소장품 관찰 후 플루이드 아트로 표현'은 다양한 렌즈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플루이드 아트 기법(유동적인 성질을 가진 재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재료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작품이 완성된다)'을 활용해 작품을 재창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현재 드영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박상

화 작가 초대전 '환상자연'과 연계돼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1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방법은 드영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광주 대표 작가 59명 참여 '희망아트페스티벌'

예술의전당 재개관 기념 회화·조각·사진 등 선배

광주지역 원로·중견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예술의전당(구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가 참여하는 특별전 '희망아트페스티벌'을 오는 7월9일까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작가 조규일·우제길·박지택을 비롯해 중견작가

김영화·최재영·류현자, 청년작가 박정일·양호열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5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전시를 통해 최근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광주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희망의 빛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회화·조각·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구상과 추상을 오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시선이 담긴 작품이 전시된다.

박지택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장은 "전업미술가들의 치열한 창작 정신은 광주 화단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양분이다"며 "우리 작가들이 어려운 시기를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 '희망아트페스티벌'의 전시작 중 하나인 박지택 작가 작품.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이겨내고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에 설립된 한국전업미술가협회는 전업미술가의 모임으로 한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선인 기자**